

이력서: [Github io link](#)
포트폴리오: [Portfolio link](#)
포트폴리오 상세설명: [Portfolio details link](#)

자기소개

항상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파악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여 대학교에서는 학과 학생회의 총무를 하며 더 다양하게 사람들을 사귀었습니다. 대학 학과 선택 역시 제 성향에 맞게 선택했습니다. 산업공학과가 공대를 어우르는, 공대에 속한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하여 취학했습니다. 입학 후 최적화, 생산/품질/물류 관리 등 효율에 관련된 공부들을 했습니다. 효율성 향상은 파악 후 응용이 기본 process이며, 이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수강하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효율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2017년 하반기에 수강했으며, 이후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2018년 초에는 지인의 추천으로 인공지능 기초를 공부하는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응용 분야들 중 하나인 딥러닝 기술들, 그 중에서도 자연어 처리에 관심이 생겼고, 대화하는 기술을 직접 개발해 보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하던 중 2018년 말부터 한빛소프트에서 text/audio chatbot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목표로 공부하고자 대학원 입학을 위해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삼성청년감SW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기초 Python 언어 및 Web 개발에 대한 교육을 들으며 기본적인 Web Application의 작동 원리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기초적인 CS 과목들을 독학했습니다. MOOC 강의를 이용하여 C/C++ 언어, 자료구조, OS를 공부했습니다.

대학원 입학 직전, Kakao의 추천팀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인턴십 경험은 개인적으로 매우 소중한데, 그 이유는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고하게 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인공지능을 접한 이래로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함을 계속해서 깨달았으며, 제가 정말 원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인턴십을 진행하며 깨달은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은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며, 파악을 기반으로 응용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제가 가장 즐거웠던 일 또한 데이터를 관찰하여 실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턴십을 진행하며 대학원 과정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고, 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설정했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컴퓨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유롭게 도구로써 활용해야 할 컴퓨터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컴퓨터소프트웨어 학과의 ML system 최적화 연구실에 진학했습니다. 데이터의 양과 분석 모델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며, 제가 공부한 최적화 기술들은 앞으로 그 중요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좋은 실험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연구 업무는 물론이며, 실제 서비스 개발 업무에서도 '실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 현상을 포착하거나 개선점을 찾고, 실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가장 탄탄하게 배울 수 있는 곳들 중 하나가 대학원의 연구실이라고 생각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며 능력을 길렀습니다.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제 서비스 데이터를 다루며 일하기 위해 Undefined에 입사했습니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eSports 도메인을 다뤘으며, 유일한 AI 개발자로서 유관 부서 직원들과 협업 하에 다양한 세 가지 모듈들을 개발했습니다. 데이터를 관찰했으며, 현실적인 한계점들을 파악하여 응용 SW들을 설계 및 배포했습니다. 입사 시점에 미리 2022년 12월, 회사의 exit 시점이 예견되어 있었으며, 이에 맞추어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와 프로젝트들을 수행했지만,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데이터로부터 insight를 도출하고, 이를 응용하여 ML 모델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의 특성 및 개발 환경에 더 적합하도록 모델을 설계/최적화 하는 등, 개발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task 들이 기대됩니다.